

홍보인, '내 업무에 만족한다' 78점



광고나 마케팅 부서는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구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외생 변수가 많아 효과 측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반해 홍보팀의 피드백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홍보의 결과는 다음 날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홍보 담당자의 66.7%가 '성공적인 홍보 결과로 조직에 대한 대내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를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낀 순간으로 꼽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때'(41.9%)가 뒤를 이었다.

B2B 기업의 한 홍보 담당자는 "홍보는 피드백이 빠르고, 결과도 비교적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회사를 대표하는 홍보인의 자부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만큼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제조 업체 홍보임원은 "홍보인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영전략부터 IR 회의까지 사내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회사의 핵심기술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전했다. 홍보 담당자의 말 한마디가 회사 의견으로 비추어지고, 언론 보도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홍보팀은 사회 트렌드를 빠르게 접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종종 '정보 보고 라인'으로 비춰질 때도 있고,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이 홍보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홍보인들은 ‘사회 변화와 다양한 정보,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때’(33.3%)와 ‘업무상 만난 기자와 인간적 교감이 가능해졌을 때’(33.3%)를 애착을 느끼는 순간 3, 4위로 꼽았다.

직무 만족도 77.7점 vs 워라밸 만족도 73.1점

‘홍보인의 워라밸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직무 만족도는 77.7점인데 반해, 워라밸 만족도는 73.1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직무 만족도는 직급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워라밸 만족도는 사원과 임원이 낮게 조사됐다.


이는 업무 환경에 대한 질문에서 임원급이 ‘야근이나 새벽/주말 출근이 빈번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he직급에 비해 높았던 것과도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홍보 담당자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기자와의 연락, 메시지 발신을 위해 시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근무시간 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과 사원 직급의 낮은 워라밸에 대해서는 “임원은 업무상 대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아, 그만큼 개인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책임감도 크다. 사원의 경우에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적응기간 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으로 가장 많은 53.3%의 응답자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라고 답변했다. 또한 ‘퇴근 후 회사일을 가정으로 가져가지 않기’(45.7%), ‘점심이나 출퇴근 전후 시간을 이용해 운동 등 개인시간 갖기’(29.5%), ‘영화, 공연, 여행 등 여가 시간 활용’과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취미 생활하기’ 등을 꼽았다.

한편 회사의 워라밸 제도로는 유연 근무제(64.1%), 샌드위치 데이 및 리프레시 휴가(46.6%), 정시 출퇴근(43.7%),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16.5%)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월 2회 금요일 휴무제, PC OFF제, 반차/반반차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어 최근 기업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홍보 담당자는 “지금 담당하는 직무의 워라밸이 최상의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라밸’은 소속된 회사의 조직문화에 따라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홍보팀이기 때문에 워라밸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주 40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도 제도를 마련,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임 si0024@kaa.or.kr

표 | 직급별 직무 만족도, 워라밸 만족도 지수

(단위 : %, n=106)

